

QR 코드 인식으로 전자책 빌린다

전주시, 5월까지 3개소에 '비대면 전자책 대여 시스템' 구축 키오스크서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어

책 중심 도시 전주에 가면 간편한 QR 코드 인식으로 전자책을 빌릴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날 수 있다. 이는 전주시가 비대면 전자책 대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오는 5월까지 총사업비 7,600만원을 투입해 전북대학교병원(본관 1층)과 예수병원(본관 2층), 책기둥도서관(전주시청 로비) 등 3

개소에 비대면 전자책 대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설치된 DID 키오스크에서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인식해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전북대학교 병원과 예수병원의 경우 각각 하루 유통인구가 5,000명 이상인데다 환자와 보호자가 책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우선 설치장소로 선정됐다.

시는 이달 안에 전북대학교 병원, 예수병원 측과 비대면 전자책 대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비대면 전자책 대여 시스템 도입이 코로나19 상황 등

로 도서관에 맘 놓고 가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언제든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책을 빌려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춰 시민들을 위한 비대면 독서문화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비대면 전자책 대여 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독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방치된 빈집, 임대주택으로 정비

전주시, 2억원 투입해 '도심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 추진

도심 홍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전주시는 올해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도심 내 빈집 10곳을 임대주택이나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로 만드는 '도심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번 사업은 오랫동안 홍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주민쉼터, 공용 텃밭, 주차장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달 중 빈집 소유주와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시는 정비된 주차장이나 쉼터, 텃밭 등을 지역주민 소통공간으로 3년 이상 개방할 예정이다. 특히 임대주택은 5년 이상 학생이나 저소득층 등을 위해 주변 시세의 반값에 빌려줄 방침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오는 7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뒤 8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김윤상기자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억5,000만원을 투입해 빈집 155개 동을 정비했다. 지난해에는 2억6,000만원을 들여 2곳을 반값임대주택으로 조성하고, 주차장 10개소와 주민텃밭 2개소를 구축해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이와 관련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고자 빈집 소유자와 매수 희망자가 자율적으로 빈집을 거래하는 디지털플랫폼인 '공기랑'을 운영하고 있다.

김은주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정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빈집을 정비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주거불편을 실현할 것"이라며 "주민쉼터 등 주민들의 편의공간을 제공해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방역봉사·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유동인구 많은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서 소독작업 진행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 자원봉사자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등에서 방역봉사를 펼쳤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지난 9일 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원들과 함께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덕진소방서, 역전파출소에서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센터는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손잡이와 대기실 의자 등을 휴대용 소독 분무기를 이용해 방역 수건으로 닦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통해

개인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센터는 향후에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학교 주변과 대중교통 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봉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박정석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모든 시민들이 생활속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참여형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일 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원들과 함께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덕진소방서, 역전파출소에서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했다.

예술인복지사회연대협의회의 개최

전주시, 용역계약 활성화·효과적 고용보험 안착 방안 등 논의

전주시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예술인 및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7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 종사자와 전문가, 예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인의 가치, 전주와 같이'를 주제로 제1회차 예술인복지 사회연대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예술인 용역계약 활성화 방안과 효과적인 예술인 고용보험 안착 방안 등에 이야기를 나눴다.

사례발표에는 나유미 전문문화재단 창작기획팀장과 박영준 우진문화공간 제작감독이 참여해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2회차 예술인복지 사회연대협의회의가 열리는 21일에는 예술활동 증명과 연계한 전주형 예술인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열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예술인복지 사회연대협의회의에 참여할 문화예술인 등 10명을 모집했다.



전주시는 지난 7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 종사자와 전문가, 예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인의 가치, 전주와 같이'를 주제로 제1회차 예술인복지 사회연대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사회연대협의회의가 코로나19 이후 대응 방안을 성찰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계의 목소리가 전주시 예술인 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올해 전주 지역 첫 모내기 실시

전미동 미나리 논서 운두벼 품종

전미동 미나리 논에서 지난 9일 전주 지역 첫 모내기가 진행됐다.

전주시 전미동 화리마을 강철호 씨(50)는 이날 미나리 논 1980㎡에서 모내기를 했다. 올해 전주 지역 첫 모내기다. 이날 모내기에 쓰인 벼 품종은 극조생종인 운두벼로, 아미로오스 함량이 19.8%로 밥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미나리 재배 면적은 90ha 정도로, 주로 미나리를 재배한 뒤에 조생종 벼를 재배하고 있다. 보통 4월 하순부터 모내기를 시작해 8월 하순에

수확, 추석 무렵에 햅쌀을 공급한다.

이와 관련 전주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벼 인공상토 116만1와 순도 높은 보급종 종자 45톤을 공급하고 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저온으로 인해 봄철에도 병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며 "재해 예방을 위해 종자소독은 물론 벼이앙 전 모관처리제를 활용해 병해충 사전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기자



전미동 미나리 논에서 지난 9일 전주 지역 첫 모내기가 진행됐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